

동원로엑스(주)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동원로엑스(주)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당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당사의 사업과 관계된 모든 인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정부정책 및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다음의 방침을 숙지하고, 현장에 실현되도록 한다.

1. 중대재해 제로(zero)화

모든 책임자와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중대재해 발생은 없어야 한다는 최우선 목표에 당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한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2. 선제적 안전보건활동 강화

재해발생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예방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 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정부의 안전 보건정책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또한,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하며, 개선효과를 검증함을 통해 개선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안전한 작업과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3.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확립

현장안전보건은 결국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임하고, 안전보건원칙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과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가능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확립을 위한 다각적 소통을 활성화 한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안전교육과 기본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비롯하여 자율적인 현장안전관리와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계획하고 적극 투입한다.

2026년 1월 2일

동원로엑스(주) 대표이사

박성준

동원로엑스(주)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동원로엑스(주)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당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당사의 사업과 관계된 모든인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정부정책 및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퇴직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다음의 방침을 숙지하고, 현장에 실현되도록 한다.

1. 중대재해 제로(zero)화

모든 책임자와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중대재해 발생은 없어야 한다는 최우선 목표에 당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한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2. 선제적 안전보건활동 강화

재해발생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예방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또한,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하며, 개선효과를 검증함을 통해 개선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안전한 작업과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3.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확립

현장안전보건은 결국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임하고, 안전보건원칙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과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가능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확립을 위한 다각적 소통을 활성화 한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안전교육과 기본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비롯하여 자율적인 현장안전관리와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계획하고 적극 투입한다.

2026년 1월 2일

동원로엑스(주) 대표이사

박성준